
	<h1>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h1>			 <p>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p>	
지원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환학생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어학연수	<input type="checkbox"/>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미국	파견 학교	머레이주립대학교	
	파견 시기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Reading, Writing and Inquiry		논리적으로 에세이 쓰는 법	
		Understanding Global History		세계사	
		Intro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Introduction to Social Work		사회복지개론	
Elementary Chinese I		기초 중국어			
Contemporary Economics		현대 경제학			
체험후기	<p>여러분! 미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자연? 다양한 문화? 하이틴 영화? 총기? 마약? 파티? 위에 거론된 단어들은 제가 상상하던 미국의 이미지였고, 그로 인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기 전까지 염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미국 전역을 놓고 본다면 제가 상상했던 미국과 실제 미국이 일치했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2020년 봄학기까지 학생으로서 보내고 온 미국 켄터키(Kentucky)주 Murray라는 도시는 제 상상보다 더 재미있고, 안전하고, 계속 살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p> <p>저는 Murray State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2019년 1학기, 2학기를 수학하였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너무 만족하여 자비로 한 학기 더 머물다 왔습니다. Murray는 마음이 넉넉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타운이라 그런지 총기 관련된 알람이나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머레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분들도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자부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지도 않게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모임과 파티들이 열리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영어 스피킹 향상과 다양한 문화에서 온 친구 사귀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p> <p>[파견교 위치] Murray는 Kentucky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타운이며 공항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Nashville 공항에 도착한 후 차량을 타고 2시간 정도 더 이동해야 합니다.(인천(ICN) - 미국 내 경유지(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등) - Nashville(BNA) - 차량으로 이동 - Murray 도착)</p> <p>학교에 처음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2019년 기준, 1인 \$75)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에서 파견된 학생들을 모두 공항에서 픽업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후 기숙사에 데려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공항에서 렌트를 하거나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미리 알아보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p>				

[파견교의 시설 및 이용정보]

1. 기숙사 (2021년 봄학기 기준)

기숙사 이름	Double room (2인실)	Double as a private room (2인실 1인사용)	Designed private room (1인실)
Springer II Hall	\$2,480	\$3,678	없음
Hart Hall	\$2,779	\$4,000	없음
Regents Hall	\$2,725	\$3,921	없음
RH White Hall	\$2,725	\$3,921	없음
Elizabeth Hall	\$3,032	\$4,250	없음
Hester Hall	\$3,032	\$4,250	없음
Lee Clark Hall	\$3,472	\$4,685	\$3,906
JH Richmond Hall	\$3,472	\$4,685	\$3,906
HC Franklin Hall	\$3,472	\$4,685	\$3,906
College Courts	\$2,445	원룸 형태	

기숙사비가 비쌀수록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방도 넓습니다.

Elizabeth Hall은 공용화장실, 샤워실이지만 샤워 부스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따로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이 깨끗해서 다른 기숙사보다 더 만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를 방문해보고 짧게 살아보았는데, 가장 좋았던 기숙사는 college courts로 1인이 사용할 때 2,445달러라서 2인이 사용하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전용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원룸처럼 냉장고 침대 등등이 갖추어져 있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식을 만들어 먹거나 함께 놀고자 할 때는 가장 적합합니다. 건물이 아주 오래되서 바퀴벌레나 쥐가 나오는 동도 있습니다.

2. 식당

1) Winslow dining Hall

윈슬로우는 Buffet 형식이지만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고기, 샐러드, 과일, 시리얼, 아이스크림, 디저트, 음료, 주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아침과 주말 오전에는 오믈렛도 만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2) Curris Center

커리스센터 내에는 (1)티룸, (2)Chick-fil-A, (3)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티룸에서는 간단하게 개별 음식을 구입해 먹을 수 있으며 부리토, 햄버거 등등을 팝니다. 티룸 옆에는 스시도 팝니다. Chick-fil-A는 맘스터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도서관

1) Waterfield Library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인 한국의 대학 도서관과는 달리 공간에 따라 조금씩 환경이 다릅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학생들은 Small talk를 하기도하고 과제를 하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쇼파도 있어서 공강시간에 잠깐 잠을 자기도 합니다.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Racer Writing Center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첨삭해주는 곳으로 주 2회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racerwritingcenter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구글 독스를 공유한 후 실시간으로 첨삭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층은 Quiet Zone이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하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공간도 있어서 1층의 Cafe쪽 데스크에 가서 room key를 달라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주로 Journal 자료들이 있습니다.

2) Pogue Library

대학의 가장 입구 쪽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구 도서관입니다. 옛날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어 야마 문헌이나 역사 관련된 학과가 아니면 이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험후기

2) Pogue Library

대학의 가장 입구 쪽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구 도서관입니다. 옛날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어 아마 문헌이나 역사 관련된 학과가 아니면 이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체육관(Susan E. Bauernfeind Wellness Center)

full-size 농구 코트들, 라켓볼 코트들, 트랙, 탁구대, 수영장 등 시설도 있으며,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스피닝, 로잉머신 등 헬스장에 있는 기구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로 요가, 줌바댄스, 스피닝 등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Free-Weight Zone도 있어서 남학생들이 많이 와서 운동합니다. College Courts 아파트와 가깝고 학교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크기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수업]

머레이주립대학에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가 있으면 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머레이에 도착하면 국제학생동아리에서 교환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수강신청 전에는 담당 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상담도 합니다. 저는 원래 행정학 전공으로 파견되었는데 머레이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강신청은 자율적이었으니 복수전공하시는 분들은 복수전공 과목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선대학교에서도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수님들께 미리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평가는 한국과 다르게 절대평가이므로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LMS처럼 머레이 주립 대학교에서는 Canvas를 사용하는데, 과제제출이나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면 바로바로 점수확인이 가능하고, 퍼센트도 함께 계산되어 학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 전에는 rate my professor이라는 사이트에서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험후기

[파견교 동아리]

ISO - TAP 216(club night, flag night, movie night, multicultural night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수강신청이나 기숙사 체크인 등 ISO동아리원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Instagram - murraystate.iso

BCM, Connection international MSU - 크리스천 동아리로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합니다. Game night, Spring Break Mission Trips, International Dinner, World talent night 등등 국제학생들이 미국학생들과 어울러 놀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기 초에 Game night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기존에 있던 국제학생들이나 새로 온 국제학생들, 그리고 미국인 친구들을 빠르게 사귄 수 있습니다. Instagram - connectioninternationalmsu, bcminternational

한인학생회 - Murray State University에 한인학생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클럽 - 테니스,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운동 클럽이 있어서 가입하면 외국인 친구도 사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보통 8월 가을학기 초에 모집합니다.

[문화체험]

교환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따로 제공해주는 문화체험이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참석해서 교인의 집에 초대받아 Thanksgiving과 같은 연휴에 미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거나 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연휴에 초대받으면 미국 가정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친구들과끼리 연휴나 방학 동안 미국 각지로 여행을 가서 미국의 각 주가 가진 특색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주마다 정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차로 운전해서 미국 중부에서 동부인 플로리다까지 여행해보았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파견 전 꿀팁]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오기

운전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한인마트에 갈 때 등등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영어공부 해오기

미국에 와서 영어공부를 하겠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은 ESL과 다르게 영어로 학과공부를 해야 하므로 영어가 부족하면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과제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시작하면 미국인 친구들이 Smalltalk를 많이 걸어오는데 이때 언어라는 장벽이 있으면 성향에 따라 극복하기 힘들고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친구를 많이 사귀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3. 사계절 옷을 가져오기(1년 교환학생의 경우)

머레이는 한국과 기후가 유사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4. 교환학생 파견 관련 장학금 지원하기(ex) 미래에셋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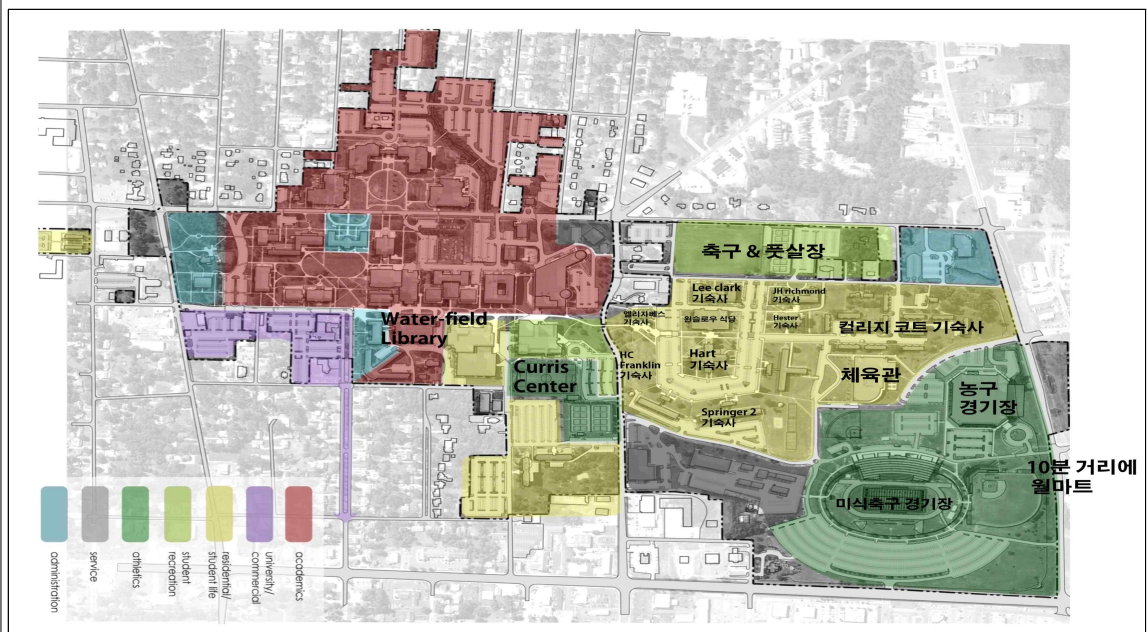
[주변 맛집]

1. Shogun(쇼군) -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한식 & 일식)
2. August Moon(어거스트문) - 중식 뷔페
3. Cracker Barrel Old Country Store(크래커 배럴) -양식
4. Dairy Queen(디큐) - 아이스크림 & 핫도그
5. Panera Bread - 카페 (샐러드, 음료, 빵)
6. Los Portales Mexican Restaurant (로스포탈레스) - 멕시코 음식

체험후기



[Murray State University 지도]



Water Field Library에서 엘리자베스 기숙사까지의 체감상 거리는 조선대학교 기준 사범대에서 중앙도서관

Water Field Library에서 컬리지 코트 기숙사까지 체감상 거리는 조선대학교 기준 사범대에서 글로벌기숙사 갔다가 중앙도서관